

與 “이재명 방탄” vs 野 “국회 책무”... 임시국회 놓고 대립

與 “이재명 檢 출석 희석 전략”
野 “경제·민생·안보 등 위기
민주당 단독 개최할 생각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소집 요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인한 파장을 희석시키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북한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 대상 긴급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며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1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곳곳이 말그대로 빨간불”이라며 “경제·민생·안보가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국민 불안이 하늘을 찌

르고 있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1월 임시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기가 차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110개 법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체라도 보고 우리가 막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이 오늘이라도 110개 법안을 내놓으면 봐드릴 것은 봐드릴 테니, 그런 목록도 내놓지 않고 어거지를 부려서야 되겠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

로 본회의를 개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소집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철저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국회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10일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날인 것을 두고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인질로 잡혀있었다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민주당

도 이재명과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도 말아달라”며 “민주당도 범죄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회가 민주당이 준비한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굳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할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까발리자고 한다”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이재명방탄 물타기용’ 본회의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철수, 당 대표 출마 선언... “尹에 힘되는 후보 될 것”

“총선 승리 못하면 5년간 식물 정부
과학기술 강국 통한尹 정부 성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대해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로 규정된 안 의원은 “이번 당 대표 선출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 밖에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서 진행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중이라며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변화를 상징하는 당 대표 ▲중도·보수·2030세대 통합 및 수도권 승리를 견

일할 당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이라며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안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 변화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원 교육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가 경영책임을 맡은 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이끄는 게 여당”이라며 외부 정책 전문가 영입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할 보강, 내부 인재 교육과 당원 연수원 설립 등으로 “전문성 지닌 정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 축사를 보낸 윤상현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두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것이고, 수도권 전장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게 옳다는 것에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만 냈다.

다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겨냥해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는 그 말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이 최근 ‘3월이면 김장 김치가 설 수 있다’는 안 의원 발언을 두고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한 지적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정진석 “김만배 금전 거래, 언론 매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전체 대장동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겨레 간부와 수석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점을 “언론 매수”라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인용,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비리에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 점까지 언급한 정 위원장은 “한겨레는 금전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대장동 검은돈이 한겨레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 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만배 씨가) 언론에 억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냐는 소문이 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내일(10일)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1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도 말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범죄 피의자 이 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메시지도 연이 어 났다. /최영훈 기자

檢 출석 앞둔 이재명 “정부, 번데기 정권”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과 안보 뿌리째 흔들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린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번데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요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고물가, 소비위축, 제조업 부진 삼중고로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며 “국민 걱정은 태산이지만 정부여당은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렸다. 비상한 위

기의식도, 국민 고통 공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와 작전의 실패에도 거짓말로 참사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히 추궁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비상사국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 기초 전면 쇠신과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다”며 “국정 기초를 전면 쇠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 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athfinder@

尹 풍자 전시회

‘표현의 자유’ 논란

국회가 새해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회사무처가 9일 새벽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를 준비하던 풍자 작품 80여점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작품 중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작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대·최강욱·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2023 굿바이전인 서울’을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굿바이전 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품을 철거한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